

# 광주시, 소규모 공사장도 안전 꼼꼼히 살핀다

### 연면적 1000㎡→660㎡로 점검 대상 확대... 분기별 1회→월 1회 건축안전센터 기능 강화... 노후 건축물·무허가주택 안전점검 집중

광주시가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소규모 건축공사장을 대상으로 안전·품질 점검을 확대하고, 노후 건축물과 무허가 주택 등을 직접 방문 점검하는 등 안전 사고 예방 시스템을 대폭 강화한다.

18일 광주시에 따르면 앞으로 건축안전센터 기능과 역할을 확대하고,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대상·횟수 확대 및 해체공사장 점검 강화, 민간 건축공사장 품질관리 점검, 40년 이상 소규모 노후건축물 및 무허가주택 안전점검 등에 집중한다.

광주시는 특히 건축안전센터 기능을 대폭 강화해 소규모 건축공사장의 안전과 품질관리를 확대하고, 재난 취약 건축물의 안전사고 등을 사전 예방할 계획이다.

건축안전센터는 2021년 7월 설립됐으며, 공무원과 건축사, 구조전문가 등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건축공사장·노후건축물 안전 점검, 안전 관련 기술·정보 제공 등 전문화된 민원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광주시는 가장 먼저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대상 및 횟수를 늘리기로 했다. 안전점검 대상은 기존 연면적 1000㎡ 이상 현장에서 연면적 660㎡ 이상

으로 확대해 소규모 건축공사장까지 안전관리 상황을 살핀다.

시는 또 착공 초기 시공자·감리자 등 건축관계자를 대상으로 사전교육과 자문 활동을 강화하고, 안전 점검 횟수도 분기별 1회에서 월 1회로 촘촘히 관리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건축물 해체 현장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해체계획서 절차 준수, 안전시설 설치 등 적정성을 확인해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신속하게 행정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광주시는 자치구, 품질전문가와 협업해 민간 건축공사장에서 사용하는 자재 등에 대한 품질관리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대상은 오피스텔·다가구주택 등 건축허가 공사장이며, 연 2회 이상 전수 점검을 한다. 특히 불량 자재 사용 등 민원이 발생한 현장에 대해선 수시 특별점검 등을 통해 관행적 불법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다.

시는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노후건축물과 무허가주택에 대해서도 안전 점검 등을 꼼꼼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광주시 건축안전센터 관계자들이 최근 도심 속 공사현장을 방문해 안전사고 예방 점검 등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시는 건축사 등을 직접 현장에 투입해 40년 이상, 연면적 200㎡ 미만 소규모 노후건축물 1715동과 무허가주택 1113동에 대한 안전 상태 등을 살펴본 뒤 건축주 등에게 보강방법 등 안전 대책을 제시할 계획이다. 특히 시민 안전이 우려되는 무허가 주택은 장마철(7-8월) 이전까지 점검을 완

료하기로 했다. 박금화 광주시 건축경관과장은 "시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도심 속 건축공사장과 노후 건축물 등에 대한 철저한 사전 점검을 통해 광주시민 모두가 어디서나 안전한 안심 도시 광주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사물인터넷 설치비 90% 지원

### 광주시, 27일까지 접수

광주시는 "미세먼지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라 소규모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 사물인터넷(IoT) 설치비 지원사업을 한다"고 18일 밝혔다.

광주시는 올해 17억 원을 투입해 지역 소규모 사업장의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설치비의 90%(자부담 10%)를 지원할 계획이다.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배출시설·방지시설의 전류·압력·수소이온농도·온도 등 운영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 관리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현재 광주시에 소재한 중소기업 가운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배출시설 4-5종 사업장으로, 법정 의무설치 기한이 임박한 5종 신규 사업장, 기존 사업장, 4종 신규 사업장으로 우선 지원한다.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따라 2022년 5월 3일 이후 가동 개시 신고한 시설이 있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5종은 오는 6월까지, 개정 전 설치된 기존 사업장(4-5종)은 2025년 6월까지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부착 지원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오는 27일까지 광주시 환경보전과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해빙기 공사장 안전 주의” 광주시 84곳 선제 점검

### 민·관 합동 3월 29일까지 진행

광주시는 “해빙기 건설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3월 29일까지 지역 건설공사장을 대상으로 자치구, 국토안전관리원, 민간전문가 등 민·관 합동 안전점검을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지반구조가 약화하는 해빙기를 맞아 지반 침하, 흙막이 붕괴, 건축물 부동침하 등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만큼 선제 점검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지역 내 건설공사장 중 공정률 70% 이내, 토목 및 골조 공사가 진행 중인 건설공사장 84개소다.

이번 점검에서는 ▲굴착면 적정 기울기 확보 여부 ▲공사장 주변 침하 여부 ▲흙막이 등 가설구조물, 주변 축대 등 붕괴 및 변형 여부 ▲안전시설(안전난간, 추락방지망 등) 설치 규정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점검 결과 현장조치가 가능한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하고, 조치가 어려운 부분은 위험요소가 소멸 때까지 지속 추적 관리할 예정이다.

박남주 광주시 시민안전실장은 “해빙기에는 겨우내 얼었던 땅이 녹기 시작하면서 지반구조가 약화되고, 건설공사장에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다”며 “안전점검을 통해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요인을 미리 방지해 더욱 안전한 광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

## 광주도시공사, 월드컵경기장 주차장 태양광발전소 준공



광주도시공사가 광주 월드컵경기장 주차장 부지 내에 설치한 499kW 규모 태양광 발전소 전경.

### 연간 601MWh 전력량 생산 267t 온실가스 저감 효과 기대

광주도시공사는 “에너지자립도시 조성을 목표로 광주 월드컵경기장 주차장 부지에 499kW 규모 태양광 발전소를 준공했다”고 18일 밝혔다.

도시공사는 월드컵경기장 태양광 발전소 설치를 위해 광주시, 시의회, 롯데마트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난해 8월 월드컵경기장 주차장 유휴

부지 8650㎡를 확보했다. 이번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소는 도심 경관과 어울리는 디자인을 적용하고, 다양한 조명시설도 설치했다.

월드컵경기장 주차장 1단계 태양광 발전시설은 연간 601MWh의 전력량을 생산하고 267t의 온실가스 저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도시공사 정민곤 사장은 “앞으로도 공공 유휴부지를 추가 발굴해 시민이 제감할 수 있는 에너지사업을 보급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광주시, 공동데이터 활용 탁월... 데이터행정 우수기관 선정

### 행정안전부 주관... 2단계 상승

### 전국 첫 빅데이터분석센터 개소 등

광주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데이터 기반 행정 실태점검 및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민선 8기 들어 ‘데이터·융합·실증행정’을 시정혁신 과제로 선정하고, 데이터 근거 행정 혁신사업 등을 적극 추진해 왔다.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46개 기관을 대상으로 판

리체계, 공동활용, 데이터분석, 역량문화 등 4개 분야 12개 세부지표를 평가해 우수·보통·미흡 3개 등급을 부여한다.

광주시는 공동활용데이터 활성화, 빅데이터 분석결과 정책활용, 데이터활용역량 문화 향상 등 모든 분야에서 성과를 인정받아 우수기관에 선정됐으며, 특히 공동활용데이터 활성화 분야는 만점을 받는 등 전년도 대비 평가등급이 2계단 상승했다.

광주시는 지난 1년간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시정 구현을 위해 분석 전담조직인 데이터 분석팀을 신설하고, 데이터 전문위원을 채용 배치했으며, 전국 최초로 시정 내부에 빅데이터분석활용센

터를 개소했다.

또 각 부서에서 보유한 데이터를 모든 직원이 쉽게 검색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맵’도 구축했다.

광주시는 앞으로도 지역 데이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직원의 데이터 맞춤형 교육을 확대하는 등 활용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배일권 광주시 기획조정실장은 “데이터 중심의 과학적 행정으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한국토지부동산(주)

## 전원주택 신축

## 매매 9억5천만원



##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 상담문의 010-3733-3933